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2021년11월24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150 천 km ² 	인구 35백만 명 (2020 ^e) 	정치체제 이슬람군주정 	대외정책 친서방 
GDP 7,001억 달러 (2020 ^e) 	1인당GDP 19,996 달러 (2020 ^e) 	통화단위 Saudi Arabian Riyal(SAR) 	환율(U\$기준) 3.75 

-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요르단·이라크·쿠웨이트, 동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카타르, 남쪽으로는 오만·예멘과 접경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원유 생산량 및 매장량을 바탕으로 세계 원유 수급과 가격을 주도하는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으로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시아파인 이란과 대립하고 있음.
-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나, 풍부한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
-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6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문화협력협정('75년), 경제·기술협력협정('75년), 항공협정('84년), 항공운수소득면세협정('91년), 투자장려·보호협정('03년), 이중과세방지협정('08년),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12년), 국방협력협정('14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8년), 사증발급간소화양해각서('19년)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3,951,951	3,697,120	3,301,896	자동차, 고무제품, 철강판
수입	26,335,761	21,840,581	15,979,621	원유, 석유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6월말 누계 기준) 259건, 5,411,88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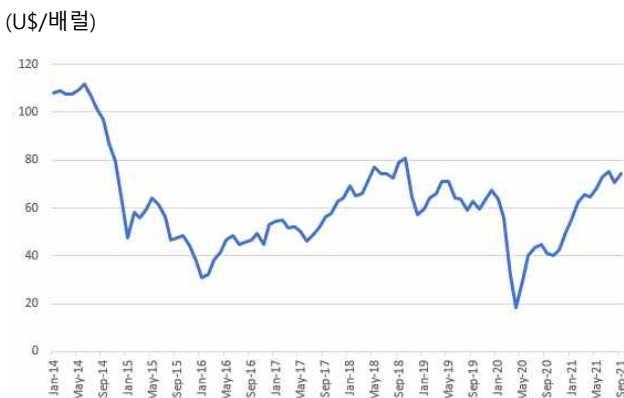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0.7	2.4	0.3	-4.1	2.8
소비자물가상승률	-0.8	2.5	-2.1	3.4	3.2
재정수지/GDP	-9.2	-5.9	-4.5	-11.3	-3.1

자료: IMF, EIU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기록 후 2021년 플러스 성장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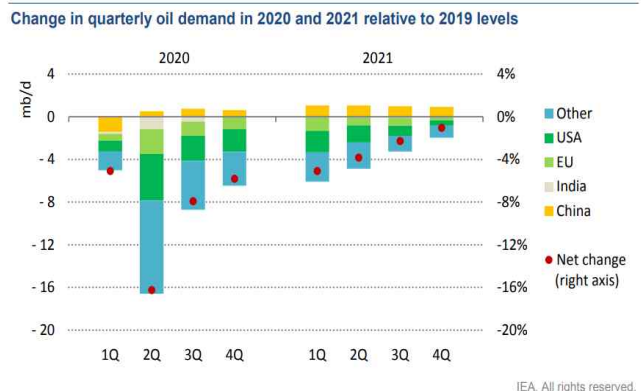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20년 기준 GDP의 23%, 총수출의 69%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및 원유 국제수요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음.
-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와 그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 및 국제유가 하락, OPEC+*의 감산 합의 이행 등으로 -4.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 2021년에는 OPEC+ 감산 합의 이행으로 석유 부문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비석유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2.8%의 플러스 경제성장률 회복이 전망됨(IMF 10월 전망).
- IMF는 당초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2021.7월)에서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바 있으며, 석유 부문 -0.4%, 비석유 부문 4.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함. 세부적으로는 비석유 부문 중 민간 부문 5.8%, 공공 부문 0.7%의 성장을 전망하여 민간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았음.
- 민간 부문의 경우 부가가치세(VAT)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조치(Lockdown) 완화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여행업 및 컨택트 산업 부문이 2020년 하반기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임.

국제유가 추이(브렌트유 기준)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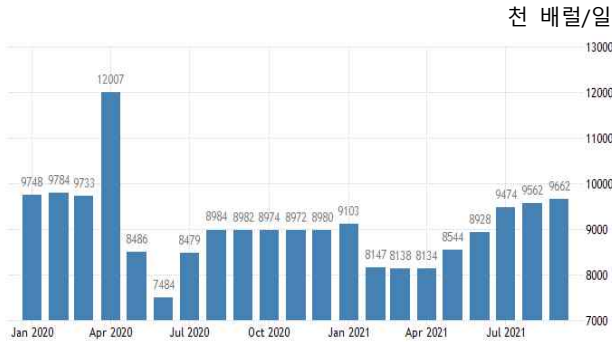
석유 국제수요 증감 추이(2019년 대비)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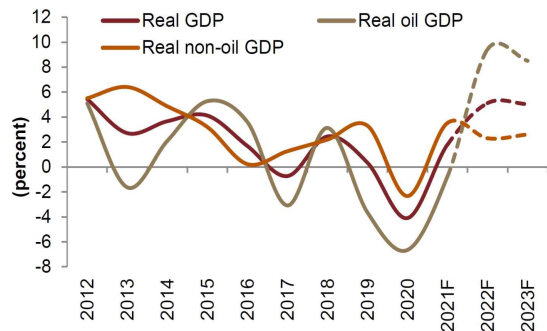
국내경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
(2020.1~2021.9)



자료: Tradingeconomics.com

석유·비석유 부문별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Jadwa Investment(사우디아라비아 종합 금융 서비스 회사)

부가가치세율 인상(5% → 15%)으로 2020년 3.4%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

-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내수 침체 및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인상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2.1%에서 2020년 3.4%로 상승함.
-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어 2021년에도 3.2%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되나,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만료되는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됨.

* 경과규정 주요내용: 계약체결이 2020년 5월 11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부가세는 5%이며, 계약만료 날짜, 계약연장 날짜 또는 2021년 6월 30일 중 가장 빠른 시점으로 계속 유지, 계약 체결이 2020년 5월 11일 ~ 6월 30일 사이인 경우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급될 부분만 5% 부가세 적용되며, 2020년 7월 1일부터 공급되는 부분은 15% 부가세 적용 등 (자료 : KOTRA)

사우디아라비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국내경제

2020년 큰 폭의 재정적자 기록 후 2021년 국제유가 회복 등으로 재정적자 완화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민간 분야 긴급 금융지원 133억 달러 배정, 보건·의료 대응을 위한 125억 달러 규모의 예산 추가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활지원금(Cost of Living Allowance) 폐지, 정부기관 근로자 임금 합리화, 선별적인 인프라 투자 단행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친 2,869억 달러를 기록함.
-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2020년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비석유 부문의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98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주요 수입원인 석유 부문의 수입이 전년 대비 -31% 감소한 1,101억 달러를 기록한 영향으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0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1.3%를 기록함.

2019~20년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 달러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재정수입	2,472	2,085	-16%
석유 부문	1,585	1,101	-31%
비석유 부문	886	983	11%
재정지출	2,825	2,869	2%
재정수지	-354	-784	122%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 재정수지는 2021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경기 회복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0년 대비 크게 감소한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IMF).
- 사우디아라비아의 2021년 상반기 예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고유가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재정수입은 당초 계획 대비 9.5% 증가한 2,480억 달러를, 재정지출은 2.6% 증가한 2,70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수입·지출 현황(상반기)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구 분	2021.1~6월	전년대비 증감(%)	2021.1~12월 ^f	전년대비 증감(%)
재정수입	1,208	39%	2,480	19%
재정지출	1,240	-1%	2,707	-6%
재정수지 (GDP 대비)	-32 (-0.4%; 전년동기 -5.5%)		-227 (-2.7%; 전년동기 -11.3%)	

자료: Mid-Year Budget Performance Report_H1 of FY 2021(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전망치는 IMF와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간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10,464	71,972	38,230	-21,565	36,088
경상수지/GDP	1.5	9.2	4.8	-3.1	4.3
상 품 수 지	98,461	168,749	121,336	47,944	113,747
상 품 수 출	221,862	294,387	261,617	173,864	251,013
상 품 수 입	123,401	125,638	140,281	125,920	137,266
외 환 보 유 액	486,634	486,417	488,245	441,178	439,333
총 외 채	125,180	221,306	186,355	238,700	249,067
총외채잔액/GDP	18.2	28.1	23.5	34.1	29.6
D.S.R.	4.3	5.0	6.6	12.4	9.6

자료: IMF, EIU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실물경기 위축으로 석유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2020년 경상수지 적자 기록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원유 확인 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으로,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2017~19년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함.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기준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석유 국제수요 감소, OPEC+의 감산 합의 이행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1,213억 달러 → 479억 달러)하며 GDP 대비 -3.1%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 한편, 서비스수지는 공공 서비스 및 운송업 관련 지출 감소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544억 달러 → -459억 달러)하였으며, 이전소득수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액 증가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366억 달러 → -374억 달러)하였음.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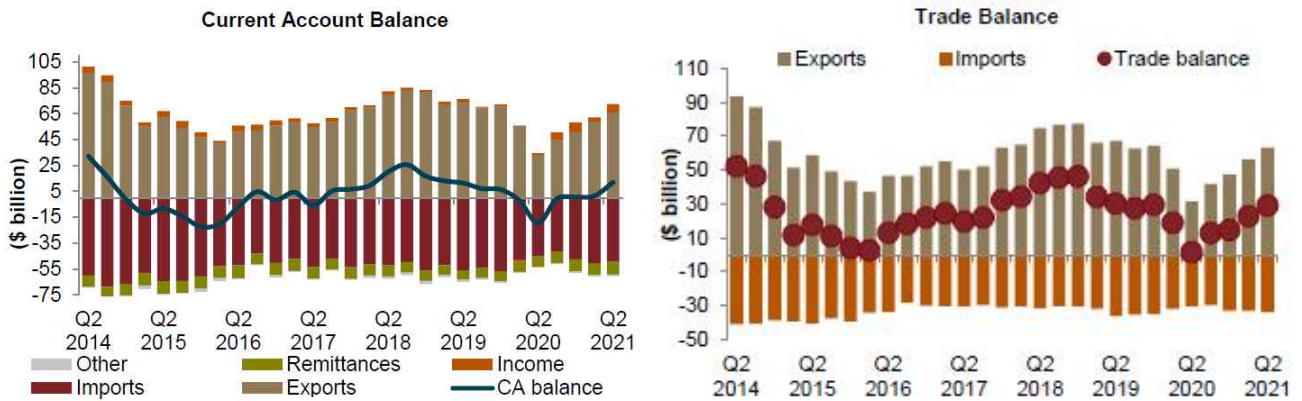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석유수요 급감의 결과 브렌트유 기준* 2020년 4월 24일 배럴당 19.33달러까지 추락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 85.82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각국의 석유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2,5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EIU).

*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기준

- 상품수입액의 경우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현지 기자재 조달 방침 등 현지화 정책 강화로 증가 폭이 수출액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품수지 개선의 영향으로 2021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4.3%의 흑자 전환이 전망됨(IMF,EIU).

- 한편, IMF는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국제유가를 배럴당 56.6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배럴당 80달러 수준의 높은 국제유가 추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상수지 개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자료: Jadwa Investment

외채상환능력

D.S.R.은 2020년 12.4%까지 상승 후 2021년에는 9.6%로 하락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증가(204억 달러 → 255억 달러)한 반면, 상품 수출 감소에 따른 총수출 감소(3,065억 달러 → 2,059억 달러)로 D.S.R.이 12.4%까지 상승함.
- 2021년 외채원리금 상환 예정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27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품 수출이 2,5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총수출(2,846억 달러) 증가로 2021년 D.S.R.은 9.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월평균 수입액의 28개월분에 달하는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국부펀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

-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4,882억 달러 → 4,412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수입액 대비 28개월분에 달하며, 이는 걸프협력회의(GCC) 주요 국가들(아랍에미리트 4개월, 쿠웨이트 12개월, 카타르 6개월, 오만 5개월 등) 대비 월등히 높은 편임.
- 아울러 2020년 GDP 대비 119% 및 총외채 대비 349%에 달하는 8,327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OECD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구조적취약성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에 취약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2016년부터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2020년 기준 GDP의 23%, 총수출의 69%를 차지)가 높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국제유가 및 석유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함.

※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2019년(GDP의 30%, 총수출의 70%) 대비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산업다각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석유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 및 석유 국제수요 감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4.1%)과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2.8%) 및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되고 있음.

국제 원유시장에서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로서의 입지 약화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기준* 세계 2위의 원유 확인매장량(2,975억 배럴, 점유율 17.2%)과 생산량(11백만 배럴/일, 12.5%)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세계 석유 수급과 국제유가를 좌우하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미국이 셰일오일 개발로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16백만 배럴/일, 18.6%)이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스윙 프로듀서로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

*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예멘 후티 반군의 테러 위협 지속

-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 연합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며 예멘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이후 예멘 내전은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시아파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 예멘 내전에 적극 개입했던 아랍에미리트의 군부대 철수(2019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예멘 내전 개입 철회 공식화(2021년), 국제사회의 비난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2021년 3월 후티 반군에 휴전을 제안한 바 있으나 후티 반군은 동 제안을 거절함.
- 후티 반군은 2021년 8월 예멘 정부군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여 3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데 이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Aramco)의 석유시설도 공격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수소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잠재력

-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수소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수소산업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총 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공장인 NEOM Helios 건설을 추진(2025년 완공 예정)하고 있음.
- 'Helios Green Fuels'로 명명된 동 프로젝트는 Air Products(미국), ACWA Power(사우디), NEOM 신도시가 각각 동일한 지분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시 하루 650톤의 그린 수소와 매년 1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가 생산될 예정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린 수소 생산에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이)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수소 수출에서도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아울러, 석유 및 천연가스의 오랜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도 높음.
-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자금력 역시 수소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국제시장의 우호적인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원 조달 가능성도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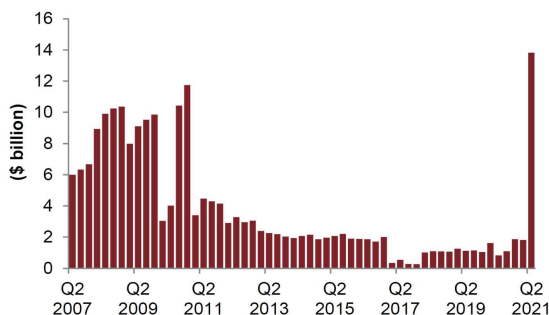
* Moody's A1, Fitch A

2017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세 기록

-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2분기에만 138억 달러가 유입*(동 통계가 개시된 2006년 이래 최고 수준)되는 등 2017년부터 FDI 유입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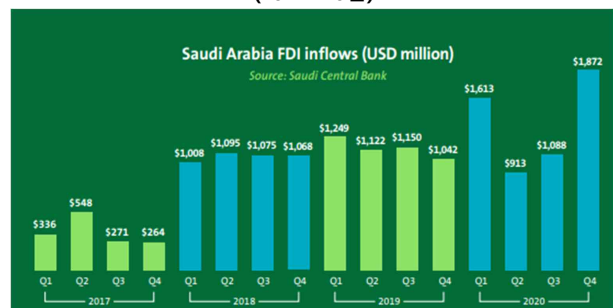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인 아람코(Aramco)가 2021.6.21.자로 송유관 자회사(Aramco Oil Pipeline社) 지분의 49%를 EIG Global Energy Partners(美) 및 Mubadala(아부다비 국부펀드) 등 국제투자컨소시엄 앞으로 124억 달러에 매각한 것에 기인함(한국수출입은행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액(I)
(2007.2분기~2021.2분기)



자료: Jadwa Investment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액(II)
(2017~20년)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MA)

성장잠재력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여력 개선

- IMF가 2021년 10월 Regional Economic Outlook(Middle East and Central Asia)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균형재정 유가를 배럴당 2021년 82.4달러, 2022년 72.4달러로 전망한 가운데, 2021년 10월 20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85.82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수출 수익 증가에 따른 재정 확충을 통해 투자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2021년 10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 원유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완화 속도 유지 결정(2021.10.4) 등 공급 측면에서의 더딘 증가세, 국제 원유 재고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1년 4분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평균 81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2022년에는 배럴당 평균 7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미국 내 산유량 감소도 원유 공급 부족을 가중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으며 Goldman Sachs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함(2021.9.27.).

인구의 높은 젊은층 비중

- 2019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중 35세 이하의 비중은 69%(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기준)임. IHS Markit은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높은 젊은층 비중은 성장 및 변화를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중요한 성장동력이 됨과 동시에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다만, 충분한 일자리 마련 및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함.
-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19년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의 종합적인 기술력 수준은 141개국 중 25위(現 노동인구의 기술력 23위, 미래 노동인구의 기술력 21위 등)로 평가됨.

정책성과

장기 국가개발계획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성과 공표

-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이하 비전 2030)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분야별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함.
- '비전 2030'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개발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는 2021년 4월, 지난 5년 간의 '비전 2030' 세부 분야별 주요 성과를 공개하였으며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의 규모 확대(2015년 1,520억 달러 → 2020년 4,000억 달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2017년 19.4% → 2020년 33.2%), 비석유 부문의 GDP 비중 확대(2016년 55% → 2020년 59%) 등을 강조함.

사우디 비전 2030의 경제 부문 주요 성과

세부 분야	주요 성과
금융 및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부펀드 PIF의 자산 증대: 2015년 1,520억 달러 → 2020년 4,000억 달러 · 사우디 주가지수인 타다울(Tadawul) 지수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 및 S&P Dow Jones 지수 편입
정부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부채관리센터(National Debt Management Center) 설립
비석유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2017년 19.4% → 2020년 33.2% · 비석유 부문의 GDP 비중 확대: 2016년 55% → 2020년 59% · 비석유 재정 수입 증가: 2015년 443억 달러 → 2020년 983억 달러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달성 · 광섬유 통신망 적용 확대: 2017년 120만 가구 → 2020년 350만 가구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C+ 설립 및 원유 생산량 감축 주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audi Vision 2030 홈페이지(<https://www.vision2030.gov.sa/mediacenter/news/saudi-vision-2030-fifth-anniversary/>); 검색일: 2021. 10. 26)

부가가치세율 인상(5% → 15%) 단행

-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인상함. 동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재화 및 용역 판매에 따른 세금 수입은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 증가한 436억 달러를 기록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정책성과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시

- 사우디아라비아는 외자 유치를 통해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비석유 부문의 비중을 높이고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 빈 살만 왕세자는 정보통신(IT), 금융,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중동 본부를 리야드로 이주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HQ' 정책을 발표(2021년 2월)함.
- 동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본부를 설립한 기업에 50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 사우디인 고용 할당량 적용 면제, 미래 규제로부터의 보호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2024년부터는 자국 내에 중동 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임.
-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리야드 보다 개방적이고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정책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음.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수는 2020년 전년 대비 하락

- 세계은행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효율성 지수*는 최근 2017~19년 동안 0.3점 수준을 유지해 오다 2020년 0.1점으로 소폭 하락함. 2020년 아랍에미리트가 1.3점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카타르 0.9점, 바레인 0.4점으로 뒤를 이음. 쿠웨이트는 -0.2점으로 GCC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일한 0.1점을 부여받았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효율성 지수는 GCC 국가 중 중하위권을 기록함.

* 최저 -2.5점(나쁨) ~ 최고 2.5(좋음)

정치안정

살만 국왕은 고령에 따른 건강 이상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실상 국정 총괄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국가로 국왕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하고 있음. 전원 국왕이 임명하는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자문회의(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 수행)에서 정책 심의·자문 및 법률 제·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왕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
- 살만 국왕은 1935년생으로 2015년 1월 즉위 당시 이미 79세의 고령으로 건강 이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살만 국왕 유고 시 왕세자의 왕위 계승이 유력해 보임.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현재 30대인 만큼 왕위 계승 시 장기 집권이 전망됨.

2017년 6월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세자 폐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책봉

- 2015년 4월 부왕세자(왕위계승 서열 2위)로 책봉된 빈 살만 왕자는 2017년 6월 21일 사촌형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세자가 폐위되면서 신임 왕세자로 책봉되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빈 살만 왕자가 빈 나예프 왕세자를 감금하고 물러날 것을 강요하였으며, 빈 나예프 왕세자는 폐위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배제된 동시에 가족과 함께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왕실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킴.
- 1953년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의 유언으로 형제간 왕위 계승이 전통처럼 이어져왔으나, 현 살만 국왕은 이러한 전통을 깨고 자신의 아들인 빈 살만을 왕세자로 책봉하여 왕세자의 정통성에 논란이 존재함.

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빈 살만 왕세자의 행보

- 2017년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정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부패혐의자에 대한 수사·체포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Initiative)를 창설함.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빈 살만 왕세자는 칙령 발표 당일 다수의 왕자들을 포함하여 전·현직 장관 및 고위 관료, 유력 사업가 등 20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한 후 수도 리야드의 리츠 칼튼 호텔에 연금하였음. 이들은 거액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헌납당하고 빈 살만 왕세자에게 충성 서약을 한 뒤에야 석방된 것으로 알려짐.
- 빈 살만 왕세자는 반부패위원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뽑겠다고 천명하였으나, 국제사회는 그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만한 세력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2021년 4월과 10월에도 다수의 정부 부처 직원·관리 등이 부패 혐의로 체포됨.

정치안정

빈 살만 왕세자는 독재자 또는 개혁가의 양면적인 모습 혼재

-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의 운전 및 축구장 경기 관람을 허용하였으며, 총고용인구 내 여성의 비중 확대 (22% → 30%) 등을 비전 2030의 세부 목표에 포함시키는 등 개방·개혁적인 면을 보이는 한편, 정부 비판적인 개혁 언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반대 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임.

사회안정

언론의 자유는 GCC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빈 살만 왕자가 왕세자 지위에 오른 2017년 6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 활동가·기자들에 대해 구금, 고문 또는 징역이 가해진 사례가 증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2021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180개국 중 170위로 GCC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쿠웨이트 105위, 카타르 128위, 아랍에미리트 131위, 오만 133위, 바레인 168위, 중국 177위, 북한 179위, 에리트레아 180위 등
- 특히 2018년 10월 개혁 성향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피살된 사건의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지목되면서 201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172위까지 하락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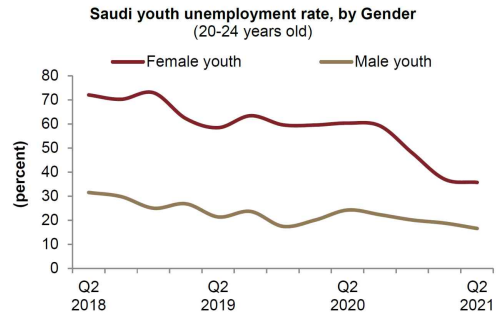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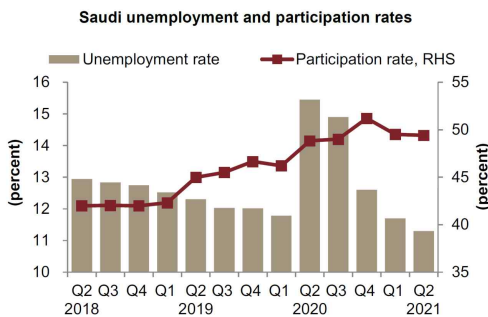
2020년 부패인식지수는 GCC 국가 중 4위를 기록

-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53점을, 순위는 한 계단 하향된 52위(총 180개국 대상)를 기록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21위, 71점), 카타르(30위, 63점), 오만(49위, 54점)에 이어 GCC 국가 중 4위를 기록함.
※ 바레인, 쿠웨이트는 나란히 78위, 42점으로 GCC 국가 중 최하위

사회안정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불안 증가 우려

-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2020년 2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5% 이상의 수준으로 급등하였음. 이후 실업률은 다시 하락하여 2021년 2분기에 11.3%로(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기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사회안정이 저해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젊은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 3월 산업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부문 투자 계획인 '샤릭(Shareek)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자료: Jadwa Investment

Moody'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력과 제도 및 거버넌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 및 사회 위험 등을 고려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 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증가는 사막 기후를 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며, 청년층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효과적인 현지인 의무고용 정책 시행이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정부의 구조 및 재정 개혁 등을 포함한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 변화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움직임

-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 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친사우디아라비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실제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으며, 미국산 무기를 무고한 민간인의 살해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또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비판하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승인했다고 판단하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임.
-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며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무기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는 중동 국가들에 대해 방공 체계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협정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됨.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아랍 4개국, 카타르와 외교관계 복원

- 걸프 지역 6개 수니파 왕정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은 GCC를 결성하여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카타르의 친(親)이란 정책과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s)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아랍 4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집트)이 2017년 6월 카타르와 단교하면서 결속이 약화된 바 있음.
- 미국과 쿠웨이트의 중재 노력으로 2021년 1월 아랍 4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GCC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CC 내 무역과 교류 회복에 따른 경제 회복이 기대됨.
- 다만, 카타르가 아랍 4개국과의 외교관계 복원 후에도 단교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원 중단, 알자지라(Al-Jazeera) 채널 폐쇄, 카타르에 주둔한 터키군 철수 등 아랍 4개국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현재의 화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국제관계

중동 지역의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 구축과 이스라엘과의 협력 가능성

- 2020년 8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 중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고, 같은해 9월에는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중동 지역 내 동맹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

* 이집트(1979년), 요르단(1994년)

-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 국내 보수적인 이슬람 세력의 반발 등으로 이스라엘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에는 신중한 입장이나, 2020년 9월 사상 처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적기에 영공을 개방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변화의 조짐을 보임.
- 2021년 2월에는 이란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우라늄 농축농도 상향 계획 발표 등 이란을 둘러싸고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이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방위 동맹')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됨.
- 이란은 강경한 반(反)이스라엘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이란의 이슬람 공화정과 시아파 정체성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수니파 왕정에게 최대 위협임. 이란은 중동에서 시아파 연대를 구축해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을 거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왔으며,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아사드 정부를 후원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지원한 반군 세력들을 패퇴시킨 바 있음.
- 아울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중동지역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견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한 중동 지역의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 구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1년 5월 수백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이 동 분쟁에 대해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던 사건은 중동의 동맹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전통적 우방이었던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변화 움직임

-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으나, 최근 양국 간의 동맹 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양국 간 갈등의 조짐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 예멘 내전에 개입했던 아랍에미리트가 2019년 예멘에서 철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동맹을 맺은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은 예멘 정부군과 충돌하기도 하였음.
-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8월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여, 아직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른 행보를 보임.

국제관계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고 수도인 리야드를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임.
* 50년 간 법인 소득세 면제, 사우디인 고용 할당량 적용 면제, 미래 규제로부터의 보호 등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 2월, 중동 지역 본부를 자국 내에 두고 있지 않은 다국적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아랍에미리트를 자극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갈등은 2021년 7월 OPEC+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가 OPEC+의 감산 조건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표면화됨. 동 OPEC+ 협상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생산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지난 40년 간 OPEC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아랍에미리트의 태도 변화는 두 국가 간 경쟁과 대결의 격화 신호로 비춰지고 있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 존재

-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지도자 님르 바크르 알니르를 포함한 반체제 인사 47명을 처형한 것에 항의해 이란 시위대가 주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불을 지르고 점거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단교를 선언했으며,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시아파 무장조직을 지원해 중동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간주해 옴.
- 이러한 양국 관계에 최근 긴장 완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음. 양국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의 중재 노력으로 2021년 4월 양국 정부 대표는 바그다드에서 단교 이후 첫 회담을 가졌으며, 8월 2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무 장관과 이란의 아미르압둘라히얀 외무 장관이 회담을 갖는 등 양국은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은 2021년 9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웃이며, 두 나라의 직접적인 대화가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힘.
- 다만, 살만 국왕은 이란이 시아파 무장조직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아 양국 간 민감한 사항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외채상환태도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21년 9월 22차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166.8억 달러(단기 13.3억 달러, 중장기 153.5억 달러)이며, 이 중 1.5억 달러를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연체비율이 0.9%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1.01)	2등급(2020.01)
Moody's	A1 (2016.10)	A1 (2016.05)
Fitch	A (2019.09)	A+ (2017.03)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 2019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19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2021년 7월 Fitch는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으로 대외충격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가 일부 완화된 점, 정부의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상향 조정함.
-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경상·재정 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부채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Moody's는 2020년 5월 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함 바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 국제수요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4.1%) 및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실물경기 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2.8%) 및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됨.
- 2020년 외채원리금 상환액 증가와 석유 등 상품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D.S.R.이 12.4%까지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의 영향으로 상품수출이 개선되어 9.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말 기준 월평균 수입액의 28개월분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GDP 대비 119% 및 총외채 대비 349%에 달하는 국부펀드 규모를 고려 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2021년 9월 기준 동국의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0.9%),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태도 역시 양호하다고 판단됨.
- 2021년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HQ' 와 민간 부문 투자 계획인 '샤릭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 국가개발계획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 중동 정책 변화에 따라 중동 지역 내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채널 구축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